

무안공항 재수색...“더 이상 유족 아픔 없어야”

내달 29일까지 매일 경찰·군·유가족 등 250명 투입 초기수습 한계 보완...둔덕·외곽 6개 구역 정밀 수색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남겨진 과제를 풀기 위한 유해 재수색이 13일 시작했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더 이상 유족의 아픔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사조위와 경찰, 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오는 5월 29일까지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유해 재수색을 실시한다.

주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색은 지난 2월 사고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해가 추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107개 톤백에서 유해 추정 물품 107점과 유류품 등 800여 점이 확인됐다. 유해 추정 물품을 감식한 결과 지난달 27

일 기준 실제 희생자 유해로 확인된 것만 33점에 이르면서 현장에 미수습 유해가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이뤄지는 대대적인 정밀 수색 현장에는 민·관·군·경 합동 약 250명이 매일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경찰청 과학수사대 등 100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등 군 100명, 소방 20명, 사조위·전남도·무안군 공무원과 유가족 등 30명이 수색에 참여한다.

수색에 참여하는 인력들은 현장 합동지휘본부 설치해 운영에 나선다.

지휘본부 아래에는 사조위 사무국장이 전담하는 잔해수색본부,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이 도맡는 정밀수색본부, 군이 맡는 외과수색본부, 소방이 맡는 안전구조본부, 국토부 등이 전담하는 수색지원본부



13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

등이 꾸려진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색 구역은 사고 지점인 활주로 인근 로컬라이저 둔덕을 중심으로 총 6개 구역으로 나뉜다. 둔덕 주변과 추가 발견 지역, 갈대숲, 진입등 설치 구역, 배수시설,

인접 내지리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유해 발견 가능성이 높은 둔덕 일대가 우선 수색 대상이다.

경찰청 과학수사대가 둔덕 주변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의심 부분을 깃발로 표시한 뒤 호미 등으로 10~30cm 땅을 파낸 후 유해나 유류

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파낸 흙을 양동이에 담아 잔류물에서 유해 추정품 등을 수집한다. 유해 추정품이 나올 경우 임시 유해보관소에 안치한 뒤 감정을 의뢰, 인계하는 작업을 거친다.

앞서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유해가 추가 발견되면서, 초기 수습의 한계와 책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관련 보고를 받고 책임자 문책과 함께 유해 미수습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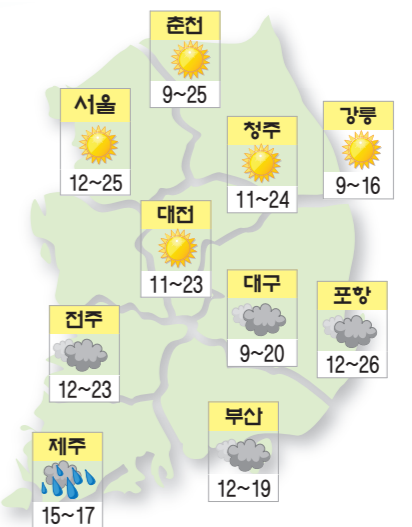
한편 이날 약 80cm 면적의 수색이 이뤄졌으며, 유해로 추정되는 12점과 소형가방 등 유류품 2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대규모 재수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탓에 각종 오류가 발생했으며, 중장비가 투입돼 현장이 훼손되는 등 혼선이 발생해 오후부터 작업이 중단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6:02 🌧️ 맑음 04:03
 🌧️ 맑음 19:04 🌧️ 맑음 15:36



광주	☁️	12~23
목포	☁️	12~20
여수	☁️	12~19
순천	☁️	11~21
구례	☁️	11~22
광주	☁️	11~19
신도	☁️	12~18
흑산도	☁️	11~16
진남	☁️	11~19
진도	☁️	13~18

목포	미물(고)	11:55 / --:--
	샘물(저)	05:00 / 17:38
여수	미물(고)	07:16 / 19:23
	샘물(저)	00:38 / 13:21

광주·전남교육청, 세월호 교육 주간 운영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와 함께 생명 존중·안전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3~17일을 계기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학교에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한편, 추모와 안전교육 활동을 병행한다.

13일에는 간부진이 목포 신항만 세월호 선체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진행했으며, 16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추모 행사와 함께 안전교육 실천 다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노란 리본 달기, 추모글 작성 등 자율적인 추모 활동이 진행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억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안전교육’을 주제로 6~17일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전 기관이 동시에 묵념에 참여하며, 학교별로 토론·프로젝트 등 참여형 수업을 통해 안전의 가치를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웃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사을 앞둔 13일 오후 광주 남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의 나무에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추모 리본을 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여수 수상레저 사고 86% ‘장비 고장 표류’

모터·고무보트 대다수...해경, 무상점검 등 추진

지난해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의 대부분이 장비 고장에 따른 표류 사고로 나타났다.

13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수상레저 사고 49건 가운데 단순 장비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는 42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이 중 약 92%가 고무보트와 고무보트로 집계돼 개인 레저기구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처럼 단순 고장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해경이 예방 중심 대응에 나섰다.

여수해경은 오는 24일 여수시 웅천 이순신마리나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및 구명조끼 입기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구조 요청 방법 등을 안내해 이용자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22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검사 대행기관(KOMSA)과 민간 수리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팀이 꾸려져 엔진과 주요 항해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이 이뤄진다.

또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정비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 정비 요령과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해경은 특히 표류 사고가 총출이나 좌초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과 구명조끼 착용을 필수 안전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총장로 ‘차 없는 거리’ 프로젝트로 상권 살린다

동구, 11월까지 리온페스타...문화·소비 결합 실험

광주 동구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와 소비를 결합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동구는 지난 4일 총장로와 금남로 상가 일원에서 ‘2026 총장 리온페스타’를 개막하고 오는 11월까지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총장 리온페스타는 총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 상권 축제다. 자체 집계 결과 최근 4년간 1만3000여명이 방문하고 약 24억 7000만원의 매출 효과를 기록하는 등 소비 촉진과 유동 인구 유입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사는 ‘리온하게 총장이 ON다!’를 주제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 진행된다. 공연과 체험, 상권 이벤트를 결합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개막 행사에서는 전국 아마추어들이 참여한 ‘K-POP 총장스타’, 금남로 상가 문화의 날, 판매대행 서포터즈 운영 등이 진행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차 없는 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공연 관람과 체험 프로

그램, 상권 이벤트 참여가 어우러지며 상권 연계형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는 ‘동구판페이 2차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운영됐다.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갯자이’ 행사와 연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행사 당일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제 참여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동구는 총장로와 금남로 상가 일대를 단순 상업공간을 넘어 체류형 문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문화와 상권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원도심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편의점 운송 노동자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 7명 경상

만년집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편의점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총 7명의 경상자가 발생.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와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전남 나주 운곡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진행.

이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A편의점에 신선식품 등을 배송하는 노동자들로, 사측이 총파업에 맞서 대체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신선식품 등 일부 화물에 대한 차량 출입을 막아왔다고.

그러나 경찰이 이날 출입구를 통제하고 화물 차량이 오가도록 조치하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충돌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노동자 4명과 경찰관 3명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

이번 사태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해가 진 뒤 어두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제하려다 노동자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8학년도 고교 내신 9→5등급제...“변별력 충분”

광주시교육청, 대입 등급 변화 대비 성적 분포 분석 “우려 불식”...입시 전략 ‘내신+성취도’로 재편 신호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해 관내 일련 2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 분포와 성취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단순한 성적 통계를

넘어, 2028학년도 대입 체제에서 내신 평가 방식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진학지원센터는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함께 관내 일련고 전체 51개교 2학년 학생

1만800명을 대상으로 전과목 석차등급 평균과 성취도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과목 석차등급 평균 1.00인 학생은 전체의 2.00% (216명)로 학교 당 약 4명 수준에 그쳤다.

이는 상위권 학생이 과도하게 늘어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 달리, 최상위권 규모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9등급제와의 비교에서도 의미 있

는 결과가 나왔다. 5등급제 평균 1.0·2.5·4.0등급은 기존 9등급제 기준 각각 1.51·4.18·6.59등급 수준으로 분석돼,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적 분포의 구조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체감하는 내신 변별력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성취도 분포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공통과목 6개에서 성취도 A 비율은 평균

24.65%, E 비율은 8.24%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 등급 경쟁을 넘어 학업 성취 수준 자체를 평가하려는 교육과정 취지가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대입 전략의 변화를 예고한다.

동국대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이 성취도 반영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내신 등급뿐 아니라 과목별 성취 수준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중 평가 체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전남대학교 2028학년도 수시 교과전형 지원 가능 등급도 제시했다. 경영대는

2.26등급, 공과대는 2.24등급 내외로, 내신 2등급 초반대 학생이면 국가거점국립대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단순 평균 기준인 만큼 실제 진학에서는 성취도, 원점수, 전공 적합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영 교육감은 “이번 분석이 고교 현장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받은 고1, 2학년 학생들의 진학 지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대학 입시 환경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